

수치로 본 IT2004

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 30일 '수치로 본 IT 2004' 통계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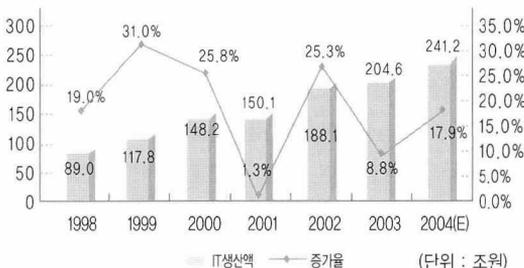
이 자료에 따르면 2004년은 IT수출 및 제조업의 성장,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국가 기술경쟁력 상승 등 한국이 정보통신일등국가로의 입증받은 한 해였다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IT산업,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화, 국제협력, 국제사회의 평가(국제 IT지수) 등 5개 부문의 2004년 한국 IT산업의 수치를 살펴 본다.

1. IT산업 부문

- ① IT산업 성장률은 '03년 8.8%에서 지난해는 17.9%로 110% 증가했다.

〈 IT산업 생산액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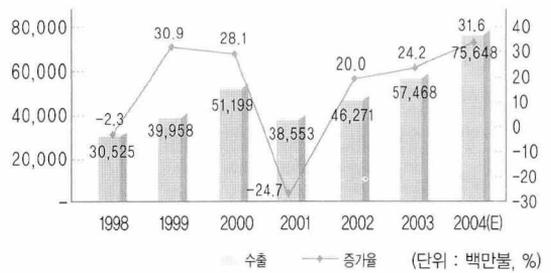


IT생산은 전년대비 17.9% 증가한 총 241조원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내 소비 및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높은 수출 증가세(32%)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② IT산업 수출은 '01년 이후 3년만에 약 2배로 증가하여 '04년 수출은 '03년(575억불) 대비 31.6% 성장한 756억불로 전망되고 있다.('01년 386억불에 비해 약 2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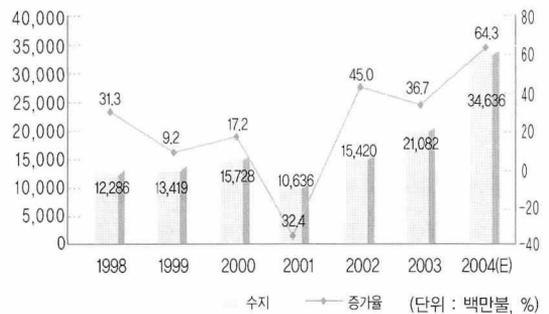
이는 휴대전화,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품질경쟁력 유지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 IT산업 수출 추이 〉



- ③ IT산업 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대폭 증가(32%)하고, 수입은 소폭 증가(13%)한 결과, 전년대비 64% 증가한 346억불을 기록할 전망이다.

〈 IT산업 무역수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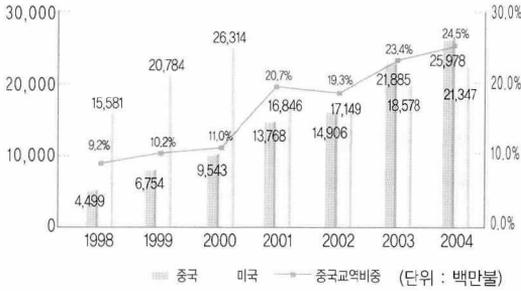


- ④ 지난해 최대 IT 교역국으로는 중국이 259.8억불(1월~11월)을 기록하며 '03년에 이어 미국을 제치고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對中國 교역비중도 증가 추세('03년 23.4% → '04년 24.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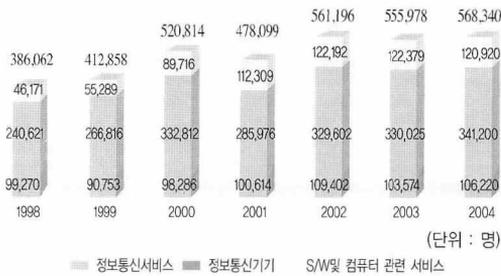
이는 국내 IT제품·부품·중간재의 對中國 수출 증가 및 저가 중국 IT제품의 국내 수입 증가 영향으로 보인다.

〈 주요국별 IT교역 규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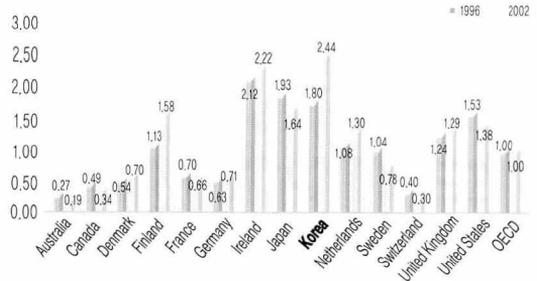
- ⑤ '04년 IT산업 고용은 IT 생산 및 수출 성장세에 힘입어 정보통신기기분야(3.4% ↑)를 중심으로 1만2천여명 증가했으며, 전체로는 전년대비 2.2%의 소폭 증가세를 기록했다.

〈 정보통신산업 인력 현황 〉



- ⑥ IT재화수출이 전체 재화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02년 기준)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96년 3위 → '99년 2위 → '02년 1위)을 기록했으며, IT산업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가간 비교하기 위해 도입한 IT특화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에서도 2.44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98년에는 아일랜드, 일본에 이어 3위 → '02년 1위)

〈 IT특화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1996-20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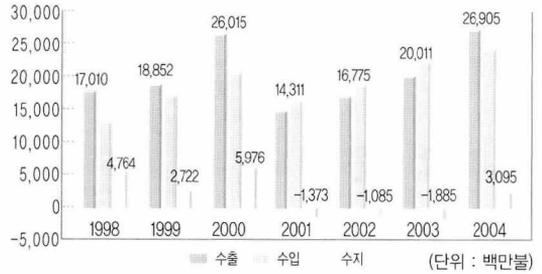


※ IT 특화도 = $\frac{\text{대상국가의 IT수출액} \times \text{OECD 전체 제조업 수출액}}{\text{대상국가의 전체 제조업 수출액} \times \text{OECD 전체 IT수출액}}$

- ⑦ '04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대비 34.6% 증가한 269억불, 수입은 9.2% 증가한 238억불을 기록하여 '01년 이후 4년만에 31억불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컴퓨터·휴대전화 경기 호조와 플래쉬 메모리 수출(30억불) 선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플래쉬 메모리 수출 추이 : '03년 17.35억불(메모리반도체 수출 중 16%) → '04년 30.33억불(메모리반도체 수출 중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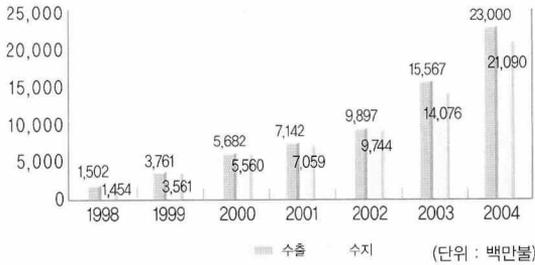
〈 반도체 수출 및 무역수지 추이 〉



- ⑧ 이동전화단말기 수출(부분품 포함)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57.6%의 고속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04년은 230억불의 수출이 전망된다. 또 이동전화단말기는 수출액 대부분이 곧바로 무역흑자액으로 기록되는 등 IT수출 효자품목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월간 수출액이 그동안 부동의 1위를 지키던 반도체(24.16억불)를 제치고 휴대전화(24.54억불)가 1위 품목으로 부상했다. 이는 국내기업의 컬러폰, 카메라폰 등 고기능 단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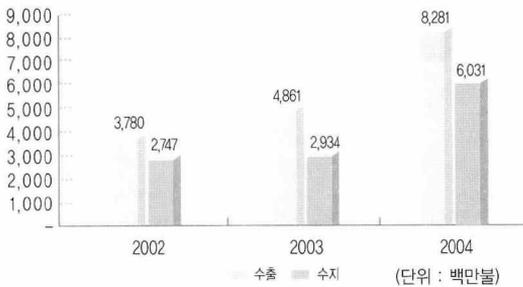
기에 대한 높은 기술경쟁력 및 유럽, BRICs 등 적극적인 시장개척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이동전화 수출 및 무역수지 추이 〉



- ⑨ 지난해 LCD패널 수출도 전년 대비 70% 증가(83억불)했으며, 무역 흑자는 106% 증가(60억불)하여 3대 IT수출 품목으로 부상했다. 이는 경쟁국인 대만에 한발 앞선 차세대 생산라인 가동과 높은 원가 경쟁력 및 기술적 우위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LCD 수출 및 무역수지 추이 〉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 ① 90년대 20%이상 고도성장하던 통신서비스시장(매출액 기준)은 2000년대 들어 성장세가 둔화 추세('04년 4.5% 성장)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선통신시장 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선통신시장도 요금 인하, 가입자 증가 둔화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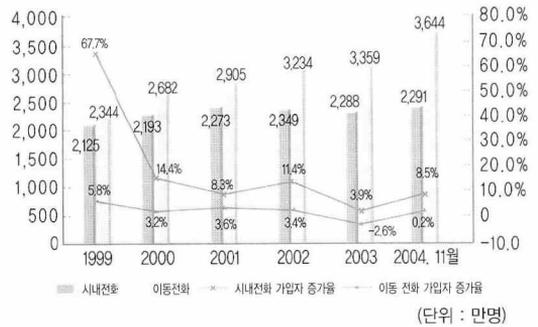
〈 통신서비스시장 매출액 〉

(단위 : 조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E)
유선통신 매출액 (유선통신증가율)	9.1 (14.3%)	9.7 (6.5%)	11.1 (14.5%)	12.8 (15.4%)	13.6 (6.2%)	13.4 (-1.6%)	13.6 (1.8%)
무선통신 매출액 (무선통신증가율)	6.6 (33.4%)	9.2 (40.2%)	12.3 (33.7%)	13.7 (11.1%)	15.2 (11.1%)	15.7 (3.2%)	16.8 (6.8%)
합계	15.7 (21.6%)	18.9 (20.6%)	23.5 (23.8%)	26.5 (13.2%)	28.9 (8.7%)	29.1 (0.9%)	30.4 (4.5%)

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03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했지만 유선전화시장의 경우 포화 상태로 시내전화 가입자 수는 정체가 지속되고, 이동전화가입자 수는 사업자별 마케팅 강화로 소폭 증가했다.

〈 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



- ②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등으로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은 다소 완화됐다. 시내전화 번호 이동은 대부분 KT에서 하나로로 전환하여 KT의 유선전화가입자 점유율은 소폭 감소('03년 95.6% → '04년 93.9%)했다.

※ 전체 195,486명 중 185,732명이 'KT → 하나로' 전환(12.24일 기준)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는 약 288만명으로, SKT의 이동전화 점유율도 소폭 감소('03년 54.5% → '04년 51.3%)했다.

〈 이동전화 가입자 수 및 SKT 점유율 추이 〉

(단위 : 만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11
합계	2,682	2,905	3,234	3,359	3,644
SKT (점유율)	1,445 (53.9%)	1,518 (52.3%)	1,722 (53.2%)	1,831 (54.5%)	1,871 (51.3%)
KTF (점유율)	842 (31.4%)	959 (33.0%)	1,033 (31.9%)	1,044 (31.1%)	1,172 (32.2%)
LGT (점유율)	395 (14.7%)	428 (14.7%)	479 (14.8%)	484 (14.4%)	601 (16.5%)

〈 이동전화 번호 이동자 수 〉

(단위 : 명, 12, 26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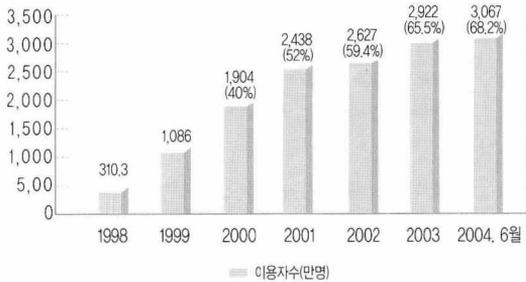
SKT	KTF	LGT		총계
(KTF-SKT)	(SKT-KTF)	(SKT-LGT)	(KTF-LGT)	소계
549,470	1,251,015	845,702	231,894	1,077,596
2,878,081				

3. 정보화 부문

① 인터넷 이용자 3천만 돌파('04.6월) '98년 310만명에 불과하던 인터넷 이용자 수가 연평균 46.5% 증가하여 '04년 6월 3천만명 돌파(6세이상 인구 대비 68.2%)했으며,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인구는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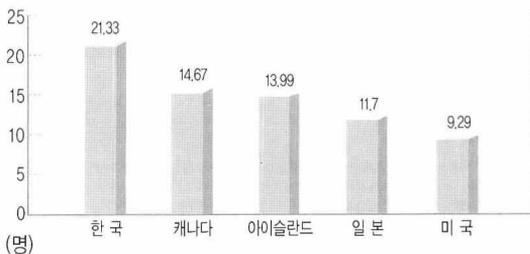
이는 초고속망 구축, 정보격차 해소, 국민정보화교육 등의 성과로 보인다.

〈 연도별 인터넷 이용자 수 및 이용률 추이 〉



②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98년 이후 연평균 208% 증가하여 '04년말 1,200만명에 육박('98. 1.4만 → '00. 387만 → '02. 1,041만 → '04.11. 1,188만)하고 있으며, 인구 백명당 가입자수는 2위인 캐나다와 45% 이상

〈 인구 백명당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



격차가 있는 부동의 세계 1위이다. 이는 초고속망 구축, ISP 등 업체들의 마케팅 경쟁, 인구 밀집도가 높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등이 성장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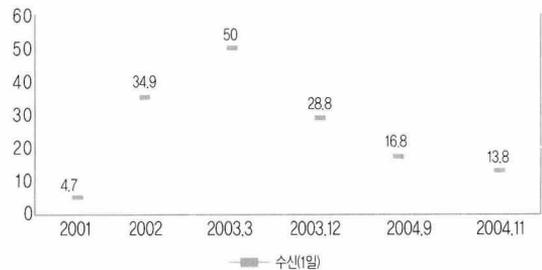
③ 전자상거래·인터넷뱅킹·온라인증권거래 비중은 전자서명 활성화 등 거래 안전성 향상 및 쇼핑몰업체 등의 마케팅 등으로 증가 추세이다.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자상거래규모 (십억원)	-	-	-	118,976	177,809	223,090	124,916 (상반기)
인터넷뱅킹계좌 (만개)	-	12	401	1,131	1,771	2,275	2,581 (3분기)
온라인증권계좌 (만개)	-	189	385	458	532	566	553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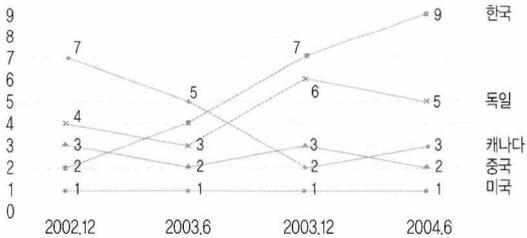
④ 해킹 피해건수는 감소, 바이러스 피해건수는 증가 추세이다.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센터 운영 등 24시간 감시 체계 확립과 신종 바이러스 진단 등으로 피해규모가 축소 또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0
해킹	158 (14.7%)	572 (26.2%)	1,943 (24.0%)	5,333 (17.5%)	15,192 (18.5%)	26,179 (7.2%)	21,288 (△5%)
바이러스	-	-	-	65,033	38,677 (△41.5)	85,023 (120%)	103,056 (66%)

⑤ 스팸메일은 2년 연속 50%씩 대폭 감소(일평균 1인당 스팸 메일 : '03.3월 50건 → '04.11월 13.8건)했다. 이는 과태료 상향조정(1천만원→3천만원), 스팸 차단 Best Practice 마련·보급, 유동 IP를 통한 스팸발송 원천 차단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 ⑥ 한국이 사이버 공격의 근원지라는 오명도 탈피했다. '02년 2위까지 올라갔던 사이버 공격 근원지 국가 순위는 '04년 9위로 내려갔다. 이는 민·관 사이버테러 대응시스템 구축과 인터넷침해사고 예·경보체계 강화, 24시간 인터넷망 모니터링 등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4. 국제협력 부문

- ① 대통령 해외순방 등 공격적인 IT외교가 추진된 한 해였다. VIP 해외순방(3회 7개국, 인도, 중남미 3국(ABC), 유럽3국(영·폴·프) 등)과 대통령 특사 방문(이집트, 튀니지, 예멘, 레바논 등 4개국)이 있었으며, IT 경제협력체 주도를 위해 한중일 IT 장관회의(EAST ASIA(CJK) ICT Summit 등 3회)도 가졌다. 또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총 35개국 85명을 만나 IT 장관 회의(외국 15개국 방문, 26개국 방한 면담)를 가졌으며, HP 등 Global IT 기업 총 22명의 CEO와 면담을 가지기도 하였다. 지난 해 정통부장관의 해외 출장 거리는 약 18만km(지구 4.5번 순회)였다.
- ② Global IT R&D센터 유치(5건, IBM, Intel, HP, 프라운호퍼, 지멘스 등)와 표준, FTA 등 성공적인 IT 통상협상(WiBro 대미통상 성공적 마무리 : 4회, WIPI 대미 협상타결 : 10회)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하며 동북아 IT 허브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 ③ IT 국제기구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펼쳤다. ITU TELECOM ASIA 2004 개최(27개국 244개 업체, 10만명 참관)했으며,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도 지원했다.

- ※ 정보접근센터 구축 : 이집트(3월), 필리핀(10월), 불가리아(12월)
- ※ 인터넷 청년 봉사단 : 32개국 300명 파견, 8,336명 교육
- ※ 초청연수: 18개 과정 318명 (정책결정자 191명, IT전문가 127명)

5. 국제사회의 평가 (국제 IT지수)

- ① IMD의 국가경쟁력 지수 중 기술경쟁력 순위는 '03년 27위에서 '04년 8위로 올라섰다. 이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지표에 추가됨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 ② IDC의 세계정보화 지수는 '03년 12위에서 '04년 8위로 상승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10위권 이내로 평가(홍콩(11위), 싱가포르(13위), 뉴질랜드(17위), 일본(18위), 대만(20위))되었다.
- ③ UN의 전자정부 지수는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수준이 높게 평가받아 '03년 13위에서 '04년에는 5위로 경쟁 올라섰다.
- ④ 이밖에도 일본 경제연구센터의 잠재경쟁력 순위 중 IT 분야는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인터넷과 PC보급률에 힘입어 '00년 18위에서 지난해에는 4위를 차지했다.

〈 주요 IT지수 순위 추이 〉

지수명	한국순위(조사대상 국가 수)			
	2001	2002	2003	2004
[IMD] 기술경쟁력 지수	21 (49)	17 (49)	27 (59)	8 (60)
[IDC] 세계정보화 지수	19 (55)	18 (55)	12 (53)	8 (53)
[UN] 전자정부준비지수	-	15 (190)	13 (191)	5 (191)